

인도네시아 민족영웅 선정에 표상된 민족주의와 통치이데올로기*

송승원**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부사업 중 하나인 민족영웅 선정에 표상된 민족주의와 통치이데올로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영웅 선정은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관제 민족주의적 성격의 대서사를 강화하고, 지방을 국가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민족영웅 선정 사업은 각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반영하고 그 정당성을 지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수카르노가 선정한 영웅들은 공화국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군부 인사나 초기내각에서 활동한 정치가들, 민족주의 기구를 창시한 초창기 지식인들이 위주였다. 이들은 공산주의, 이슬람, 민족주의, 군부 등의 이데올로기적 세력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당시 영웅들 중에 자바인이 많이 선정되었으므로 외곽도서인들 사이에서 영웅사업이 자바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군사정권을 연 수하르토는 군부 인사를 가장 많이 선정했고, 수백 년 전의 망자들을 영웅으로 선정했으며, 지방의 위인들을 비교적 골고루 선정하려 노력했다. 철저한 친미정권을 이끌었던 수하르토는 사회주의계나 공산주의계 인사들을 민족영웅에서 배제했다. 포스트-수하르토 기에도 이러한 선정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영웅선정 과정에서는 위인들의 객관적인 삶에 대한 고증보다는 정권의

237

인도네시아 민족영웅 선정에 표상된 민족주의와 통치이데올로기

* 이 연구는 201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논문에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조교수

정치적, 국가적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력을 재해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범주로 해석될 수 있는 위인의 업적이 단순화 되거나 사실의 왜곡 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방의 위인들을 일괄적으로 국가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은 다양한 지방의 시대적 관점과 자율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나 진배없었다. 영웅해석의 정부독점은 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민중들의 영웅이나 각종 지방영웅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영웅들이 자바출신, 남성 위주, 엘리트 그룹 중심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영웅선정 사업이 선택적이며 편협적으로 역사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또한 정권수립에 도움을 준 군부 인사들의 민족영웅 선정도 정권이 바뀌면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다. 포스트-수하르토 시대에 민주화와 언론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민족영웅에 대해 대중들의 논의도 활발해졌다. 대중들은 이데올로기, 군부, 자바, 남성 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비판하고, 보다 다양한 방면에 업적을 남긴 인물들로 그 선정 범주를 확대하라고 요구해 왔다.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영웅선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주제일 것이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민족영웅, 관제민족주의, 수카르노, 수하르토

I. 머리말

2013년 11월 8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이미 고인이 된 세 명의 인물에게 “민족영웅(Pahlawan Nasional)”의 칭호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¹⁾ 전국에 대대적으로 방송된 이 행사는 이틀 후에 있는 “영웅의 날(Hari Pahlawan)”에 앞선 예비행사이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영웅을 선정하는 행사는 1959년부터 시작되어 주요한 정부사업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2013년까지 156명의 영웅이 선정되었다. 민

1) 세 명의 위인은 동부 자바 출신의 라지만 웨드요다닝랏(Radjiman Wedyodiningrat)과 북수술라웨이 출신의 람베르투스 팔라르(Lambertus N. Palar), 그리고 북부 수마트라 출신의 티비시마뚜팡(Letjen T. B. Simatupang) 등이었다.

족영웅이라는 존재는 타국에도 존재하지만, 인도네시아만큼 민족영웅의 수가 많으며 그 선정이 전국의 지방정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안인 경우도 드물 것이다. 민족영웅의 이름은 전국의 도로 명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전국 곳곳에 이들의 동상, 묘지, 기타 다양한 기념물들이 세워져 있다. 중부 자바의 족자카르타시에 가면 민족영웅들의 초상을 모시는 판테온(Museum Perjuangan Yogyakarta)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영웅의 선정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망자들을 국가적 정체성의 상징이자 통합의 구심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망자를 기리는 것은 현재의 시민들에게 조국을 위해 헌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민족영웅 선정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며,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점은 정권에 따라 민족영웅의 선정이 달라지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정치적 색채가 짙은 사안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민족영웅들의 삶의 이력에는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적 대서사가 짙게 반영되며,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이 극명히 표상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민족영웅 선정이 정권의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민족영웅은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 1983)의 “상상된 민족” 구성하기와 유사한 맥락으로, 정권의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 위인의 복잡한 이력이 단순화 과정을 거치거나 허구적 해석이나 사실이 삽입되는 등 다분히 “상상되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특히 공화국 수립 이전의 망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실제 이 영웅들의 이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들의 삶의 궤적이 민족영웅이라 불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권이 선택한 영웅들이 영웅이 아닌 “국가적 배신자(Pengkhianat Nasional)”로 치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점은 정권이 정의해온 민족영웅이나 애국심의 내용이 여러 면에서 모호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영웅 선정과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민족

주의의 향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민족영웅 선정의 시작과 더불어 그 복잡한 선정과정, 정권별 선정된 영웅들의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인도네시아 정권들의 정치문화와 방향점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영웅들이 역사적 객관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과연 국가가 정의하는 영웅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비록 민족영웅 선정에서 배제되었지만 일반 대중들이 민족영웅으로 선정하기를 희망하는 인물들에는 누가 있는지도 같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이 논문은 수카르노 시대를 거쳐 수하르토 시기, 그리고 포스트-수하르토 시기 정권별 민족영웅에 선정된 영웅들과 그 특징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포스트-수하르토 시대 정권들의 영웅선정은 수카르노, 특히 수하르토 시대에 정의된 민족영웅의 틀에서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전 정권들에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할애되었음을 밝힌다.

민족주의 영웅 선정이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와 통치이데올로기의 향방을 가늠해 보게 하는 흥미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별로 없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본 논문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논문 네 편을 살펴보자면, 민족영웅이란 사업에 대해 비교적 큰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는 클라우스 슈레이너(Schreiner 2002)의 논문이 있다. 그는 민족영웅의 선발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수카르노와 수하르토가 선정한 영웅들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영웅의 일대기 분석과 선정이유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슈레이너는 공산주의계 영웅들과 수카르노, 하타 등 극히 일부의 민족영웅들의 선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민족영웅들의 선정에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국가와 정치인들이 민족영웅 선정을 의례화하고, 국민들에게 주입 학습시켜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영웅의 일대기에 대해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것은 티모시 바나드(Banard 1997)로, 그는 리아우 지방의 영웅 세 명을 사례로 들고 있다. 바나드는 이들 중 누가 최종적으로 민족영웅에 선정되었

는지를 밝혀서 민족영웅 선발이 내포하는 국가관과 영웅의 정의, 그리고 심사과정의 임의성 등을 분석했다. 이와 유사한 논문으로는 자넷 호스킨스(Hoskins 1987)의 연구가 있다. 호스킨스는 20세기 초의 쉼바 섬의 용사로 특히 이웃종족들의 머리사냥을 잘 해 명성을 떨쳤던 워나까까(Wona Kaka)라는 인물이 어떻게 수십 년 후 공화국 역사가와 정치가들에 의해서 영웅시 되어 인도네시아 국사 교과서에까지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추적했다.²⁾ 호스킨스는 쉼바인들이 워나까까의 주술적 힘과 머리사냥으로 대표되는 용맹성을 기억하며 종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웅을 기억하는 것과 달리, 정부에서 워나까까의 반네덜란드 전투에 초점을 맞추어 영웅화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호스킨스는 쉼바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도는 워나까까의 영혼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주술적 의식을 거행했다고 설명함으로써, 정부의 민족영웅 선정이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사업만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제프리 해이들러(Hadler 2008)의 연구는 미낭까바우의 이맘본줄이라는 인물이 민족영웅에 선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력이 지나치게 미화되었음을 밝혔다. 즉, 민족영웅 선발에서 영웅의 실제 이력은 국가가 필요하고 이상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조작됨을 밝힘으로써, 민족영웅의 선발이 가진 임의성과 정치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점은 우선 정권별 선정된 영웅들의 특징을 구분하였고, 두 번째로 156명의 영웅들의

2) 호스킨스는 논문에서 워나까까를 민족영웅으로 호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워나까까는 공식 민족영웅의 목록에 올라있지 않다. 워나까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족영웅이라는 호칭은 156명의 공식 민족영웅들 이외에도 간혹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자바 마자빠히트(Majapahit) 왕국의 재상으로 광대한 영토를 복속했던 가자마다(Gadjah Mada)의 경우에도 국사 교과서나 언론에서 민족영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공식 민족영웅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들이 지명하고, 사회부의 웹사이트에 등재된 공식 민족영웅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했음을 밝힌다(인도네시아 사회부의 민족영웅 목록 웹사이트 주소: <http://kemsos.go.id/modules.php?name=Pahlawan&opsi=mulai-1>). 그런데 이 웹사이트는 민족영웅에 대한 공식 웹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2009년까지 선정된 147명의 위인들만이 목록에 올라와 있음을 밝힌다).

선정 패턴에 대해 몇 개의 대주제로 분류해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는 시도되어 본 적이 없는 인도네시아 민족영웅들에 대해 전체 그림을 그려 보았다. 또한 역사적 객관성의 차원에서, 일부 민족영웅들의 자격이 논란이 되는 사례 및 일대기의 조작 사례, 그리고 민족영웅에 배제된 영웅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분석해 보았다. 특히 마지막 파트에서 민족영웅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누가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영웅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제기하는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가 지정하는 톱-다운 방식의 민족영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열망하는 영웅은 정부가 선정하는 민족영웅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영웅백과에 실린 영웅들의 일대기를 보고 분석한 결과물이다. 논문에서 참고하고 있는 일대기는 자카르타의 출판사에서 출간된 민족영웅 백과를 참조했다(Penyusun Tim Sirnabaya 2009). 민족영웅의 일대기는 대통령이 최종 선발하기 전에 이미 공식적인 일대기가 작성되고, 민간 출판사나 정부에서 제작하는 영웅 일대기나 백과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작되므로, 어느 출판사에서 제작되는 영웅백과도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역별로 민족영웅들을 잘 분류해 놓은 이 영웅백과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기타 대중들의 여론을 살피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신문사설과 블로그 등을 검색했다.

II. 민족영웅의 선정의 역사와 선발 절차

1. 민족영웅 선정의 역사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과거의 영웅 찾기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성장한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이 처음 시작한 듯 보인다. 이 지식인들은 당시 군도를 식민통치하던 네덜란드에 항거한 세 명의 인물을 영웅화했는데, 이들은 18세기 족자카르타 술탄의 왕자였던 디뽀네고로(Diponegoro), 비슷한 시기 서부 수마트라에서 아랍의 와하비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일어난 빠드리 전쟁(Padri War)의 지도자인 뚜안꾸 이맘본줄(Tuanku Imam Bonjol), 그리고 19세기 아체왕국의 뚜꾸 우마르(Teuku Umar)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각 지방의 전통엘리트 계층으로, 이슬람과 메시아적 사상을 중심으로 당시 주요한 정치세력이자 경쟁자였던 네덜란드 세력과의 항전을 이끌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는 이 세 명의 업적을 칭송하며, 이들을 “세 명의 영웅 벗들(pahlawan tiga-sekawan)”이라 불렀다(Reid 1979, 294)

초기 공화국의 민족주의 국사학자로 민족영웅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문인이자 정치인이었던 무하마드 야민(Muhammad Yamin)이었다. 야민은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군도의 과거 6백 년 간의 연속성 및 통합성의 차원에서 바라보았다(Deliar 1979, 252).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국가통합에 가장 부합하는 업적, 즉 영토성을 최대로 확장하거나 외래의 침입에 항거한 인물의 희생이 민족영웅 선정의 기준으로 부상했다.

민족영웅 선정 프로젝트는 1950년대 말 수카르노의 비호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수카르노는 여러 난제에 당면해 있었다. 수마트라와 술라웨시 및 자바에서는 다양한 반공화국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정치면으로는 이슬람, 공산주의, 민족주의계열이 서로 경쟁하는 치열한 정당 정치 속에서 내각이 파행을 거듭했다. 다양한 지방반란을 진압하고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거듭난 군부도 정쟁에 참여했다. 집권 초반에 내각에 밀려 권한이 다소 상징적이었던 수카르노는 1950년대 중반부터 군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통합의 기치를 확고히 하고자 교도민주주의기(1959-1965)를 열게 되는데, 바로 교도민주주의의 수립 해부터 민족영웅의 선정도 시작되었다. 이것은 수카르노가 민족영웅의 선정을 통하여 정권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방향들, 즉 국가통합, “나사콤(NASAKOM: 민족주의, 종교, 공산주의의 줄임말)” 체제를 통한 이데올로기 간 균등한 세력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상부상조(Gotong Royong)의 정신을 대중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과거의 망자들을 이상적인 개인이자 집단적 정체성의 모델로 선택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수카르노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민족문화의 창달사업의 일환이기도 했다(Derks 1995; Barnard 1997, 509-510).

민족영웅의 본격적 선정 이전에 수카르노는 몇 개의 칙령을 발표하여 “민족독립영웅”의 존재를 선포했다. 우선 1957년 12월에 수카르노는 매년 11월 10일을 “영웅의 날”로 지정했다. 이 날은 1945년에 혁명의 열기에 휩싸인 인도네시아의 공화국군이 수라바야에서 영국군과 대전투를 벌인 날을 기념하여 선정되었다. 수카르노는 이 날이 혁명기에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인물을 기리기 위한 날이라 천명하였다. 1958년에 수카르노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령 1958년 241호(Keputusan Presiden No 241)를 통하여, 민족영웅 선발과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은 “민족독립영웅”이라 칭해진다. 그는 애국심이 충만하여 살아생전에 인도네시아의 식민에 대항하는 조직적 활동을 이끌었거나, 외세의 적들과 투쟁을 통해 공헌을 했거나 (berjasa), 정치, 헌법, 사회-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 사람을 일컫는다(Keputusan Presiden N. 241 Tahun 1958, 1.1)

여기서 공헌 (jasa, berjasa) 이라는 용어는 곧 군사 활동이나 민간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였으므로, 민족영웅은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선발 대상이었다.

1964년에 수카르노는 이전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새로운 칙령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령 33호(Keputusan Presiden No. 33, 1964/4/14)를 통해 민족영웅의 자격과 그 선발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Barnard 1997, 512). 당시는 수카르노가 말레이시아와의 대결정책과 북 깔리만판에 군사 개입을 추진하던 시절이었으며, 이에 따라 영웅이나 공헌, 희생과 같은 단어가 개정되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이 영웅(Pahlawan)이라 불린다. 그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시민이며, a. 국가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영웅적 행동을 위해 전투에 참가하거나 희생당한 자, b. 국가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수행한 후 생존한 자, 그리고 살면서 자신의 투쟁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어떤 행위나 태도로 인해 오점을 남기지 않은 자(Schreiner 2002, 262).

이 규정의 특징은 전에 비해 “국가에 공헌” 한다는 의미의 범주가 모호하게 그려진 점이다. 또한 이전의 국가독립영웅(Pahlawan Kemerdekaan Nasional)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영웅(Pahlawan)이라는 호칭으로 고쳐 씌으로써, 민족영웅의 선정가능성의 범주를 보다 폭넓게 만든 것을 알 수 있다(Schreiner 2002, 262).

이렇게 개정된 민족영웅의 정의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수카르노는 총 33명의 민족영웅을 선정했고, 수하르토는 하야 전 해인 1997년까지 70명을 선정했다. 수하르토 이후에 정권을 잡은 4명의 대통령들은 2013년까지 총 55명의 영웅을 선정했다. 이 중 하비비 대통령(재임: 1998.5.21-1999.10.20)은 6명을,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재임: 1999.10.20-

2001.7.23)은 2명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재임: 2001.7.23-2004.10.20)은 8명을, 그리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현 대통령(2004.10.20-현재)은 총 39명을 각각 선발했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총 158명의 영웅 중 수카르노와 하타가 각각 두 번에 걸쳐 종류가 다른 영웅칭호를 획득함으로써, 총 인원은 156명이다.

2. 민족영웅의 선발절차

민족영웅 선발에 관한 사안은 사회부와 교육문화부, 군부의 협조 하에 진행된다. 사회부 산하에 중앙영웅선정기관(BPPP: Badan Pembina Pahlawan Pusat)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관장은 사회부 장관이 맡고 있으며, 위원들은 국방부, 국립문서원, 대통령의 국방비서(military secretary)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매년 열리는 영웅의 날 기념식에 맞추어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선전한다. 사회부와 국방부 등은 각각 자신들의 분야에서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Schreiner 2002, 263).

지방에서는 민족영웅을 배출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사안이며, 이에 따라 주지사와 시장, 군수, 지식인 등이 지방인사의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방에서 이토록 민족영웅에 지방인사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 클린켄은 2006년에 동부 누사뎡가라의 꾸뽕에서 두 번째로 영웅으로 선정된 도꼬(IK Doko) 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반 클린켄은 지방인사의 민족영웅 선정을 통해 비로소 동부 누사뎡가라인들이 저개발 되고 소외된 변방이라는 현실이 반드시 국가를 위한 투쟁에서 소외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았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민족영웅 선정을 통해 누사뎡가라인들이 기독교도들이 사는 가난한 “변방”이라는 위치에서 탈피하여 “중앙”으로 진입하고자 했다고 본 것이다(Klinken 2012, 173). 또한 민족영웅을 아직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를 지역의 수치라고 여긴다. 하미드 압둘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리아우 주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이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까지 영웅을 배출하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Hamid 1989, 291).³⁾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민족영웅을 적어도 한 명씩은 배출해 온 가운데, 동남부술라웨시 주에서는 아직까지 민족영웅을 한 명도 배출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 주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17세기의 술탄이자 이슬람을 최초로 도입한 술탄 무르훔(Sultan Murhum)이라는 인물을 민족영웅으로 추대하는 작업을 벌여왔지만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공화국의 질서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매년 예정되어 있는 민족영웅 선정을 위해 각 지방에서는 지역출신의 영웅 후보들을 추려내어 그 일대기를 작성해 중앙에 보낸다. 지방의 인물들을 선정하는 것은 각 주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방영웅선정기관(BPPD: Badan Pembina Pahlawan Daerah)의 업무이다. 이 기관은 그 지방의 군사령관, 사법부, 노동부, 사회부의 부서장 및 교육문화부 지방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지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다(Barnard 1997, 512). 원칙적으로 첫 번째 절차는 지방의 군수나 시장들이 개인이나 사회 및 정치단체들이 작성한 영웅 후보에 관한 일대기를 접수 받는 것이다. 군수나 시장, 주지사가 직접 후보를 추천해도 된다. 지방영웅선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일대기들을 살펴보고 적법성을 가린 후, 이를 중앙영웅선정기관에게 보낸다. 이 기관에서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일대기들을 검토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팀(Tim Fact Finding)을 구성해 후보들에 대한 추가적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모든 조사를 마치면 후보들의 일대기는 전기 형식으로 만들어져 대통령에게 제출된다(Schreiner 2002, 263).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그 해의 민족영웅을 선정하고, 대통령령을 발표해 선정 인물을 공표한다.

3) 리아우 주는 1995년과 1997년에 두 명의 민족영웅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원칙에서 벗어난 많은 변칙이 시행된다. 이를테면 1970년대에는 후보들의 일대기가 지방영웅선정기관에 보내지기 전에, 각 지방의 군사행정부와 문화교육부의 역사부서의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부와 민간 행정단체들이 초기 단계에서 후보 선발을 통제할 수 있었다(Schreiner 2002, 266). 또한 수카르노는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후보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민족영웅으로 추대할 만한 인물이 갑자기 사망하면 서둘러 영웅선정이 진행되기도 했다. 교도민주주의기에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민족영웅이 이런 생략된 절차에 따라 임명되었다. 반면 수하르토는 비교적 규정을 잘 지켰으며, 단 한 명만 예외였는데 그는 내무부 장관이었던 바수끼 라흐마트(Basuki Rachmat)이었다. 그는 사망하던 날 즉시 민족영웅으로 지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각 정권 하에서 선정된 영웅들의 특색은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I. 민족 영웅들의 패턴 분석

지금까지 선정된 160명 남짓 되는 민족영웅들은 각 정권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치, 사회, 경제적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인물들이었다. 최초로 독립영웅에 선정된 인물은 정치가이자 유명한 소설가였던 압둘무이스(Abdul Muis)로, 1959년 사망을 기념하여 그 해에 지정되었다. 이 해에 영웅으로 선정된 인물들은 민족교육의 창시자이자 민족운동가로 분류되는 끼하자르 데완따라(Ki Hajar Dewantara)와 수르요쁘라노또(Suryopranoto)가 있다. 총 156명 중 여성은 총 12명이며, 군부 인사는 36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바인이 77명, 자카르타 출신이 7명, 수마트라 34명, 술라웨시 18명, 깔리만탄 5명, 말루꾸 5명, 파푸아 4명, 말루꾸 5명이고, 발리인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수카르노가 선발한 민족영웅들은 공통적으로 공화국 수립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이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반식민 지방항쟁의 주역이거나, 20세기 초에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했거나, 또는 독립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사람들이다. 이들은 민간인 관료들도 다수 포함했으며, 군부출신으로 혁명에 직접 참여하다 순직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주요 이데올로기의 준거틀로 이 인물들을 분류해 본다면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그리고 종교계 인사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정치인과 군부인사, 문인 등의 직업군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들을 보다 상세히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1900년대 초반 민족주의 기구의 수립자와 회원들 및 근대 교육기관을 창설하거나 교육이념을 전파한 그룹, 2) 초기 공화국의 내각에서 활동한 정치인들, 3) 군부 인사로 혁명전쟁이나 지방반란 진압 등 물리적 투쟁에 참여한 그룹,⁴⁾ 4) 이슬람이나 기독교계, 또는 공산주의계 지식인으로 근대 사상의 전파와 공화국 수립에 앞장 선 그룹, 5) 지방의 왕족이거나 귀족 그룹으로 수카르노의 민족주의 세력에 동의하여 공화국 수립을 위해 투쟁한 그룹. 이 분류군 내에서 특정 인물의 범주가 중복되기도 한다.

우선 첫 번째 범주의 민족영웅들은 초기 민족주의 기구들인 부디우또모(Budi Utomo), 사레캣 다강 이슬람(Syarekat Dagang Islam)의 설립자들, 민족주의 교육의 창시격인 따만시스와(Taman Siswa)등의 설립자들 및 주요 인사들을 들 수 있다. 끼 하자르 데완따라(Ki Hajar Dewantara, 따만시스와 설립), 수또모(Sutomo, 부디우또모 설립자), 아구스 살림(Agus Salim)과 쟈크로아미노토(Tjokroaminoto, 둘 다 샤레캣 다강 이슬람의 지도자), 어니스트 데커(Ernest Douwes Dekker, 민족주의계 정당인 동인도당 Indische Party 설립), 사만후디(Samanhudi, 샤레캣 이슬람 설립)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4) 이들은 통상 “1945년 세대 (angkatan 1945)” 라고도 불린다.

두 번째 범주는 식민의회(Volksraad) 의원이나 독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건국의 아버지들, 그리고 수카르노기의 내각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이다. 이 들로는 수뽀모(Supomo), 꾸수마 아트마자(Kusumah Atmaja), 아리오 수르요(Ario Suryo), 라툴랑이(Ratulangi), 룸반또빙(Lumbantobing)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시민법 등을 작성한 지식인인 사하르조(Saharjo)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혁명에 물리적 전투를 수행하며 참여한 군부인사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수디르만(Sudirman), 우립 수모하르조(Urip Sumoharjo), 가 뜻 수브로또(Gatot Subroto) 등이 있다. 수디르만은 유명한 수라바야 전투를 이끌었으며, 가 뜻 수브로또와 함께 자카르타 등지의 대로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네 번째는 종교계와 이데올로기계 인사들로, 이들은 민족주의 기구의 수립자나 근대 사상의 전파와 공화국 수립에 앞장 선 그룹을 일컫는다. 수카르노는 무슬림이었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국가이데올로기인 뽀짜실라(Pancasila)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세속국가임을 천명하고, 종교간 다원주의와 관용을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민족영웅 선정도 비단 무슬림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골고루 선정되었다. 우선 이슬람의 대표적 사회기구로 근대 교육 및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친 이슬람 근대주의 사회조직인 무하마디야(Muhammadiyah)와 나흐들라툴 올라마(Nahdlatul Ulama)계 인사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무하마디야의 창시자인 아흐마드 달란(Ahmad Dahlan)을 비롯해서 끼야이 파흐루딘(Kiyai Fachruddin)과 끼야이 마스만수르(Kiyai Mas Mansur), 그리고 나흐들라툴 올라마의 창립자인 와히드 하심(Wahid Hasyim)과 자이누 아리핀(Zainul Arifin) 등이 이에 속한다.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수기오쁘라노또(Sugio Pranoto, 가톨릭 주교)등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민족영웅에 포함되었다. 공산주의 계열도 두 명이 포함되었다. 공산당 소속인 탄 말라카(Tan Malaka)와 알리민(Alimin)이 구질서 말기인 1963년과 64년에 각각 선정되었다.

다섯 번째 그룹은 19세기 후반의 지방의 왕족이거나 귀족 그룹으로 수카르노의 민족주의 세력에 동의하여 공화국 수립을 지원한 인물들이다. 그 예로는 수마트라 바딱의 왕이었던 시싱아망아라자 12세(Sisingamangaraja XII), 자바 수카르타 왕실의 빠꾸부위노 6세 (Pakubuwono VI), 족자카르타 왕실의 수르요쁘라노또(Soerjopranoto), 아째의 쏫나딘 (Cut Nyak Dhien)과 쏫나무띠아(Cut Nyak Meutia)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수카르노의 민족영웅 선정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사회 계급 문제와 결부시켜 살펴볼 수 있다. 이전 봉건시대에 혈연적 귀족 엘리트들이 지도층을 이루었다면 공화국 수립에는 평민출신들이 대거 지원세력으로 등장했고, 수카르노는 이들 중 다수를 민족영웅에 포함시켰다. 전통 귀족이나 군주들은 보통 네덜란드와 협력하여 봉급을 받고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하여 일반적으로 공화국 지도자들이 적대시한 세력이었다. 일례로 수마트라의 경우 전통귀족인 올레발랑들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끄는 평민 세력에 의해 처형되는 등 사회혁명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수카르노 시대에 평민들이 민족영웅에 선정된 것은 봉건적 제도와 계급의 시대가 저물어 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자바나 바딱, 아째의 위인들처럼 전통귀족 중에서도 공화국 수립을 지지하거나 반네덜란드 전투를 벌인 일부 인물들은 민족영웅에 선정되어 이름을 떨쳤다.

수카르노는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종교세력의 조화를 강조했으며 영웅 선정에도 이런 점에 신경을 썼다. 그러나 지역적, 종족적 영역에서 살펴보면 아직 제한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수카르노가 선정한 33인 중에서 무려 25명이 자바인(자카르타 인 포함)이고, 7명이 수마트라 출신, 1명이 술라웨시 출신일 뿐이었다.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선정된 인물이 바로 바딱의 왕인 시싱아망아라자였다. 또한 무력항쟁에 직접 가담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영웅들이 선정되자, 남성 독점화 현상을 의식하여 집권 말기에 해당되는 1964년에 세 명의 여성을 영웅에 선정했다. 이로써 자바의 18세기 말기-19세기 초의 여성으로,

네덜란드의 식민교육을 받고 자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카르티니(Kartini)와 아찌의 쫓나딘, 쫓나무띠아가 선정되었다. 이 중 카르티니는 매년 4월 20일이 카르티니의 날로 지정이 될 만큼 유명한 위인으로 추앙 받고 있다.

수카르노는 끝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1965년 9월 30일에 발발한 게스타푸(Gestapu: Gerakan September Tiga Puluh의 약자)라 불리는 공산당 소요사건을 계기로 수하르토에게 권좌를 내주었다. 군부 출신으로 수카르노를 공산당 소요의 배후 지지세력으로 지목하며 권좌에서 끌어 내린 수하르토는 수카르노의 뻘짜실라와 강력한 국가통합, 단일공화국 등의 기치를 물려받았으며, 수카르노의 민족주의 역사교육과 다양한 장치들을 강화하고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의 다양한 모뉴먼트와 박물관, 동상 등이 전국에 세워졌다.⁵⁾ 32년에 걸친 그의 집권 하에서 영웅선정은 그 외연이 보다 확대되고 주요한 국가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수하르토는 수카르노와 마찬가지로 공화국 수립이나 민족주의 수립에 기여한 망자들을 영웅으로 선정했으나, 수하르토 정권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나 정치, 사회적 목표의 차이가 영웅선정에 반영되었다. 우선 수카르노의 영웅들이 독립투쟁에 직접 가담한 인물들이 주를 이루었던 데 반해 이범주의 인물들이 이미 대부분 수카르노 시대에 선정되었으므로, 수하르토는 보다 다양한 범주의 인물들을 영웅으로 선정했다.

수하르토 정권 초기에 민족영웅에 선정된 인물들은 신질서(New Order) 정권의 수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은 1965년에는 12명의 민족영웅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수하르토의 신질서 수립을 상징하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 중에 특별히 혁명영웅

5) 이런 기념물은 대표적으로 자카르타의 루방부아야 박물관인데, 이곳은 원래 게스타푸의 희생자가 유쾌된 공간이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지원 (2012) 참조.

(Pahlawan Revolusi)이라는 범주로 구분된 인물들은 총 10명이었는데, 모두 게스타푸 사건에서 희생된 군부 인사들로 아흐마드 야니(Ahmad Yani) 등 군부의 6명의 장성을 포함하고 있다. 1969년에 영웅으로 선정된 바수끼 라흐맛은 수카르노가 수하르토에게 권력을 이양한다는 위임서인 수퍼수마르(Supersemar)의 작성 및 전달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이었는데, 수퍼수마르는 구질서의 몰락과 신질서의 수립을 정당화해 주는 문서였다. 또한 해군을 창설한 마르따디나따(Martadinata)는 게스타푸 발발 이후 전국적으로 일어난 공산당 숙청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영웅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인물들을 민족영웅에 선정한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수카르노와 공산당 세력을 국가적 배신자로 낙인 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두 번째로 수하르토 정권이 군사정권인 만큼 많은 수의 군부 출신이 영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예로는 위에서 언급한 게스타푸 관련 희생자와 마르타디나따 이외에 수페노(Supeno), 요스 수다르소(Yos Sudrso), 오토 이스칸다르디나따(Oto Iskandar di Nata)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신질서 정권 하에서 공산주의자는 더 이상 민족영웅에 선정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배신자라는 오명을 얻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무려 50만 명 이상의 공산당 혹은 무고하게 공산당이라 몰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미정권을 연 수하르토의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수하르토 하야 이후에도 지속되어서,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전면적으로 실종되었다. 이에 따라 수카르노 시대 선정된 탄 말라카와 알리민이 유일한 공산계 민족영웅으로 남게 되었다. 이들은 민족영웅의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영웅들이 집중적인 역사 교육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름이 각인되는 동안 철저히 공교육과 언론에서 배제되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수하르토 시대에 민족영웅이 먼 과거로 소급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수카르노도 자바의 빠꾸부워노 6세나 시싱아망아라자 12

세 등 19세기 인물들을 민족영웅에 선정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영웅들은 20세기 인물들이었다. 수하르토 시대에 들어오면 통상 네덜란드의 식민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1870년 이전의 인물들이 무려 17명이나 선정되었으며, 1906-7년, 즉 네덜란드가 직접통치를 시작한 직전의 인물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20명을 넘는다. 가장 나이가 많은 망자는 16세기 말에 태어나 17세기 자바의 마따람 왕국의 전성기를 열었던 술탄아궁(Sultan Agung, 1591)이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 범주의 영웅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제의 술탄 이스칸다르 무다(Iskandar Muda, 1593), 술라웨시 출신의 유명한 이슬람 지도자였던 셰이크 유습 따줄 칼라와띠(Syekh Yusuf Tajul Khalawati, 1626),⁶⁾ 술라웨시 고와왕국의 전설적인 술탄 하사누딘(Sultan Hasanuddin, 1631), 반덴의 영웅 띠르따야사(Tirtayasa, 1631), 발리의 영웅 운똥 수라빠띠(Untung Surapati, 1660), 중부자바의 왕 망꾸너가라1세(Mangkunegara I, 1725), 리아우의 왕인 라자 하지 피사빌릴라(Fisabilillah, 1727), 띠도레의 영웅인 누꾸 무하마드 아미루딘(Nuku Muhammad Amiruddin, 1738), 자바의 여성 게릴라 용사인 니 아겐그 스랑(Nji Ageng Serang, 1752), 팅렘방의 술탄인 마흐무드 바다루딘2세(Mahmud Badaruddin II, 1767), 서부 수마트라의 뚜안꾸 이맘본줄(Tuanku Imam Bonjol, 1772), 말루꾸의 용사 빠띠무라(Pattimura, 1783), 서부 수마트라의 뚜안꾸 탐부사이(Tuanku Tambusai, 1784), 자바의 왕자였던 디뽀네고로(Diponegoro, 1785), 말루꾸의 용사 마르따 왈란다 띠아하후(Martha

6) 이 영웅들 중 가장 독특한 이력을 가졌던 것은 셰이크 유습 따줄 칼라와띠였다. 그는 17세기 술라웨시 고와 출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년간 이슬람을 공부했다. 이슬람 학자로서의 명성이 높아지자 자바 섬 반덴왕국의 군주가 그를 초청했고, 이후 유습은 이슬람을 널리 전파하고 왕의 조력자로 당시 경쟁세력이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대항한 활동을 펼쳤다. 네덜란드 세력에게 체포된 이후 68세의 나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으로 유배 보내진 유습은 현지에서 이슬람을 전파하고, 네덜란드 세력에 저항운동을 벌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에도 이름을 남겼다. 메가와티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그녀는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와 만나 셰이크 유습을 민족영웅에 추대하도록 천거했고, 이 의견이 수렴되어 유습은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두 국가에서 민족영웅에 선정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Markus Junianto Sihalo, 2013).

Christina Tijahahu, 1800), 반자르마신의 안타사리(Antasari, 1809), 잠비의 영웅 따하사이푸딘(Sultan Thaha Sjaifuddin, 1816), 아제의 게릴라 용사인 텡꾸 짝 디띠로(Tengku Cik di Tiro, 1836), 아제의 용사 뚜꾸 우마르 (Teuku Umar, 1854), 람땡의 귀족 라딘 인뎨 2세(Radin Inten II, 1834)가 있으며, 이외에 출생 연도가 불명확하나 사망연도가 1849년인 발리의 이 구스띠 꺼똥 즐란딕(I Gusti Ketuk Jelantik) 도 이 범주에 속한다.

수하르토 정권은 이 영웅들의 특징이 예외 없이 네덜란드에 대항한 반식민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라 해석한다. 이러한 역사적 해석은 16세기에 처음 군도에 발을 디딘 네덜란드 세력을 이후 무려 350년간 군도를 통치한 식민세력으로 보는 사관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사책에서도 350년 식민통치라는 표현은 곳곳에 등장한다. 민족주의적 국사서술에서는 이 350년을 그 이전의 황금기(Zaman Emas)를 종식시킨 어둠의 시기(Zaman Edan)으로 그려내고 있다(Kartodirdjo et al, 1977).

그러나 역사적 실재를 놓고 볼 때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는 불과 100년도 지속되지 못했다. 19세기 후반 이전의 네덜란드의 존재는 다른 유럽세력과 마찬가지로 무역상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1799년까지 지역의 대 동남아무역을 관장했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와 마까사르 등을 점령해 기지로 사용하긴 했으나 오로지 무역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사실 이 시기는 군도 역사에 있어 어둠의 시기가 아니라 국제무역이 크게 발전한 황금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말루쿠 지역에서 생산되던 정향과 육두구 및 수마트라 등지의 후추 무역에 유럽이 가세하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은 큰 활기를 띠었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영웅으로 선정된 술탄아궁이나 이스칸다르 무다, 그리고 하사누딘과 같은 절대군주들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13세기부터 유입된 이슬람은 왕국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모하며 자바의 마따람이나 수마트라의 아제 왕국, 술라웨시의 고와 왕국 등 유명한 이슬람 국제무역 왕조들이 전성기를 누린 것이다. 당시 군주들은 결코 네덜란드를 위협한 세력이라 간주하지 않았고, 다

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언제든 무역의 라이벌로 돌아 설 수 있는 세력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많은 왕국들이 부를 축적하거나, 혹은 주변 침략국에 대항할 동맹군을 얻을 심산으로 네덜란드와 협력 및 반목을 거듭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보았듯 이 시기를 식민으로 정의하게 되자, 이 시기 일어났던 다양한 변화와 발전상보다는 “민족”이라는 대의명분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도의 다양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동일한” 식민 착취의 고통이 부각되게 된 것이다. 착취에의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군도의 다양한 종족들이 모두 “같은 고통”을 겪은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공화국의 역사가들은 16~18세기에 걸쳐 현지 주민들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전개한 지방 소요 혹은 운동들을 대부분 “식민”에 대항한 “독립운동”으로 정의했다.

지방의 향전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민족주의 영웅들도 이 범주 안에서 취사선택 되었다. 인도양 무역이 활발하던 시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세력경쟁에 놓여 결국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지역의 군주들은 민족영웅에 선정되었다. 반면 국익상 친네덜란드 기조를 유지했던 군주들은 공화국의 역사가들에 의해 “국가적 배신자(pengkhianat nasional)”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그 한 사례는 바로 17세기에 네덜란드-보네(Bone)-부톤(Buton)왕국의 동맹세력과의 전투에서 참패한 고와왕국의 술탄 하사누딘(Sultan Hasanuddin)이다. 그는 공화국의 국사학자들에 의해 민족영웅의 호칭을 얻었다. 반면 보네왕국의 군주였던 술탄 아룡팔라까(Arung Palakka)는 고와왕국을 무너뜨린 “승자”였고 현재까지도 부기스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웅이지만, 국가적 배신자라는 평가를 얻어 현재 국사 교과서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과거의 영웅 선정 과정에서 수하르토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지역적 다양성의 확대였다. 수하르토는 각 주에서 적어도 한 명씩 영웅을 선출하여 지역적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영웅을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새롭게 영웅을 배출했는데, 이를테면 이리안자야,

발리, 말루꾸, 갈리만판 등이었다. 각지의 지방영웅 선정으로 인한 효과로는 다양한 지방문화가 하나의 국가적 패러다임 속에 융해되는 것이었다(Barnard 1997, 510).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영웅의 발굴은 수카르노 시대의 영웅들이 자바 출신이 많다는 자바중심주의를 해소하려는 목표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것은 뽀짜실라가 상징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구현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수하르토 시기의 영웅 목록에는 수카르노 시기와 마찬가지로 근대화 운동에 앞장선 여성들도 포함되었다. 18세기 여성이자 왕족으로 디뽀넵고로의 전쟁을 도운 니 아겐그 스랑(Nyi Ageng Serang) 이외에도 미낭카바우 출신으로 20세기 초에 여성의 이슬람식 근대교육이 힘을 쓴 라수나사이드(Rasuna Said), 수하르토의 부인이었던 시띠 하르띠나(Siti Hartinah), 무하마디아의 창시자 아흐마드 달란의 부인이자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을 섰던 나이 아흐마드 달란(Nyai Ahmad Dahlan) 등이 선정되었다.

수하르토 시대에 선정된 영웅들의 특징은 우선 반공산주의가 주요 이데올로기적 방향이었으며 군부 정권이니 만큼 수하르토 정권 수립에 도움이 된 인사들이 특별히 선정되었고, 19세기 이전의 영웅들을 선정함으로써 민족의 역사를 연장하고 지방사를 민족사에 통합하려고 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포스트-수하르토기에 선정된 영웅들의 특징이다.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 유도요노 정권이 각각 선정한 55명의 민족영웅들의 선정패턴은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민족영웅 선정방식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하비비와 와히드, 메가와티 모두 대통령 임기가 비교적 짧아서 민족영웅이 많이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정권별 특징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족영웅 선정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공통적으로는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포스트-수하르토기 정권들의 민족영웅 선정은 공화국의 수립에 도움이 된 인사들과, 초기 정치인들, 그리고 과거 인도네시아

공화국 안에 찬성하고 도움을 준 18~19세기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비비는 수하르토의 남은 임기를 채우며 약 1년 5개월가량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이 짧은 임기 동안 6명의 영웅을 선정했다. 이들 중에는 아담 말릭(Adam Malik) 전 외무부 장관과 중부 깔리만탄 주지사 등의 공직자와 18세기 반 네덜란드 투쟁을 벌인 부기스족의 영웅인 라 마두켈렝(La Madukelleng), 19세기 중반의 리아우 주의 술탄인 샤리프 카심 2세(Syarif Kasim II), 미낭까바우의 19세기 말 올라마로 반네덜란드 운동을 펼친 이아스 야쿱(Iyas Yakoub)등이 포함되었다. 공직자와 반네덜란드 투쟁영웅을 선정하는 패턴은 수하르토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으나, 수하르토 시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던 군부인사는 영웅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군부인사의 배제는 와히드 대통령 시절에도 나타난다. 짧은 임기(약 1년 9개월)동안에 선정된 2명의 위인은 서부 깔리만탄의 신탕(Sintang) 지역의 영웅이자 멜라위 정부(Pemerintah Melawi)의 수장이었던 압둘 카디르(Abdul Kadir, 1771-1875)와 수카르노의 세번째 부인이자 메가와티의 어머니였던 파트마와티(Fatmawati)였다. 이 두 대통령이 군부 인사를 민족영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군사정권이었던 수하르토의 몰락과 동시에 군부 인사들의 인기가 추락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와히드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이행한 메가와티는 수카르노의 장녀로서 대략 3년 3개월 간 임기를 수행했다. 메가와티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대통령에 오른 만큼, 공화국 수립을 지원한 인사들과 수카르노의 정당이었던 인도네시아 민족당(Partai Nasional Indonesia) 관련 인사, 그리고 1945년 세대의 군부인사 등을 골고루 영웅에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나수티온 장군과 그 전임 사령관이었던 자띠꾸수모(Djatikoesoemo), 그리고 하산 바스리(Hasan Basry)등이 선정되었다. 기타 수카르노 시대의 정치인인인 이와 꾸수마수만뜨리(Iwa Koesoemasoemantri) 이외에 수카르노를 도와 공화국 수립에 공을 세운 부기스인인 안디 켄마(Andi

Djemma), 술라웨시 고론팔로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민족당의 고론팔로 지부장을 지낸 나니 와르파보네(Nani Wartabone) 등이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를 통해 2013년까지 39명의 영웅을 선정했다. 유도요나가 선정한 영웅들은 군부인사와 민간 인사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었다. 우선 군부인사는 공화국 혁명기나 지역반란에 공을 세운 1945년 세대 위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수마트라 출신의 티비 시마뚜팡(T.B.Simatupang), 파푸아 출신의 요하네스 아브라함 디마라(Johannes Abraham Dimara)와 화인 출신의 존리(John Lie 또는 Jahja Daniel Dharma) 등 모두 6명이다.

19세기의 군주와 올라마, 전통귀족 등 공화국 안을 지지하거나 반네덜란드 운동을 펼친 인물들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7명으로 이들 중에는 자바의 족자카르타 왕실의 술탄인 하멩꾸부와나 1세(Hamengkubuwana I), 수라카르타 왕실의 술탄인 빠꾸부와나 10세(Pakubuwana X), 보네의 군주였던 안디 마파뉴끼(Andi Mappanyukki), 북부 수마트라의 올라마였던 끼라스 방운(Kiras Bangun), 남부 수마트라의 군주 빠종아 다잉 응알리 까라잉(Pajonga Daeng Ngalie Karaeng), 루우의 여 귀족인 오뿌 다잉 리사주(Opu Daeng Risadju)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민족주의 기구를 창설하거나 발전시켜 근대교육과 사상 전파에 이바지한 인물들도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알리 하지(Ali Haji: 리아우 출신 올라마이자 최초로 멀라유어 문법책을 저술한 문인), 이스마일 마르주끼(Ismail Marzuki: 다양한 애국의 노래 제작), 띠르또 아디 수르요(Tirto Adhi Soerjo: 언론인이자 사레캇다강이슬람 조직), 이작 후루 도꼬(Izaak Huru Doko: 동부 누사뎡가라 출신으로 띠모르 청년조직을 결성해 지역의 인도네시아 편입에 기여), 안디 술탄 다잉 라자(Andi Sultan Daeng Raja: 남부 술라웨시의 무하마디아계 인사), 이담 찰리드(Idham Chalid: NU계 인사), 이그나시우스 조셉 까시모 헨드로와효노(Ignatius Joseph Kasimo Hendrowahyono: 가톨릭당 창시자 중 한 명), 라지만 웨드요디닝랏(Radjiman Wedyodiningrat: 부디우또모 창시자 중 한 명)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화국 초기 내각에서 일한 정치가 등도 포함되었는데, 무하마드 나트시르(Muhammad Natsir: 이슬람계 정치가), 압둘 할림(Abdul Halim: 수마트라 부깃 평기 출신으로 초기 내각 총리), 아흐맛 수바르조(Achmad Subardjo: 수카르노 시대 외무부 장관), 요하네스 레이메나(Johanes Leimena: 수카르노 시대 부총리 역임)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포스트-수하르토기에는 사회가 민주화되고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었으며 시민사회가 보다 성숙한 시기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영웅선정에서는 포스트-수하르토기의 다양한 사회상의 변화가 크게 반영되지는 못한 듯 보인다. 유도요노 시대에 선정된 존 리라는 군부인사가 화인으로 처음으로 민족영웅에 선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족영웅의 선정 패턴은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V. 논란 속 민족영웅들

앞서 설명했듯이 수하르토 시대에 선정된 민족의 영웅들은 다분히 그 이력의 해석 면에서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에 맞추어 단순화 과정을 거치며,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이력은 삭제되고 어떤 이력은 과장되어 후보일 대기에 기술된다. 따라서 적지 않은 인물들의 역사 속 실재를 살펴본다면 외곽도서의 영웅들이 모두 민족주의라던가 공화국 수립에 기여한 것은 아니며, 사실상 영웅의 선정이 국민들에게 모두 수궁이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영웅 만들기는 국가를 상상하기와 마찬가지로 상상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디뵈네고로나 이맘 본줄, 기타 수많은 위인들이 각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국가의 역사가들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투쟁을 전개한 인물로 단순화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중앙에서 지방 역사를 단순화하고 통일한 문화해석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해들러(Hadler 2008)는 미낭까바우의 영웅인 이맘본줄이 아랍의 와하비 운동을 본받아 이슬람 정화운동을 벌인 인물이자 반네덜란드 항쟁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민족영웅에 선정되었지만, 그의 이력에는 다음과 같은 애매모호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들러는 우선 이맘본줄이 실제로 와하비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이맘본줄이 아랍식 개혁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랍에서의 와하비 운동의 실패 소식을 듣고 스스로가 지은 모스크를 없애고 전통관습인 아닷(adat)과 모계적 전통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해들러는 늙은 이맘 본줄이 전투에 지쳐 네덜란드에 휴전을 요청한 점도 지적했다. 이맘본줄은 그러나 곧 네덜란드와 자바인의 무자비한 태도와 모스크 난입에 불만을 품고 다시 빠드리와 전통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전쟁에 돌입, 아묵(amok)을 일으켰다.⁷⁾ 그러나 해들러는 당시 그의 추종자들이 방화와 살인, 강간, 노예사냥 등의 폭력도 많이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이맘본줄은 반식민 운동의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와하비 사상도 스스로 저버린 인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영웅에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이나 혁명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그 이력이 민족주의적 대서사에 맞게 재해석되어 포함된 인사들도 적지 않다. 앞서도 살펴 보았지만 20세기 이전의 대부분의 영웅들이 네덜란드와 전투를 벌인 적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이권을 위해 투쟁한 것이며 당시는 아직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유행하지 않았던 시절로 이들이 공화국이라는 안을 위해 투쟁한 것은 아니다. 즉 이들을 지역의 영웅이라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민족영웅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자가 보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까르띠니라고 할 수 있다. 자바 한 지방의 귀족관료의 딸로 태어난 까르띠니는 당시 매우 드물게도 여성으로서 네덜란드 교육을 받았고, 사회에 널리 유행하

7) 아묵은 말레이인들이 집단적, 혹은 개인적으로 광란상태의 폭력을 저지르는 현상을 뜻한다.

던 펜팔을 통해 네덜란드의 여성운동가들과 교류를 했다. 이때 까르띠니가 유창한 네덜란드어로 쓴 편지들을 엮은 〈자바공주로부터 온 편지〉라는 책이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졌다. 이 편지들 속에서 까르띠니는 자바사회의 전근대성과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해방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의 사고는 어디까지나 자바사회에 국한되었으며, 식민의 근대화를 찬양하고 원주민의 미개성을 토로하는 등 전형적인 식민교육의 수혜자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1980년대의 역사학자인 하르샤 박티아르(Bachtiar 1989)는 까르띠니의 편지가 마치 교육받은 네덜란드 여성이란 이미지를 주었다고 하여 까르띠니의 민족영웅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게다가 까르띠니는 여성해방을 부르짖은 것과는 달리 아버지가 정해진 짝과 혼인했으며, 이 남성은 이미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으므로 일부다처제의 풍습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녀가 공화국에 대한 기여했다거나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하여 수여받은 민족영웅의 칭호는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내러티브가 지닌 다소 역설적인 면모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대중들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본 인물은 바로 수카르노와 하타이다.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의 선언자인 수카르노의 경우는 뻔짜실라를 고안했고, 하타는 초대 부통령이자 유명한 사회주의 경제 초안을 작성하고 조합운동을 벌인 인물로, 이들의 역사적 중요성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하르토는 사실상 암묵적으로 수카르노에게 “국가적 배신자”라는 오명을 씌웠는데, 이것은 수하르토 집권 초기 공표된 〈1967년 결정(TAP 1967)〉에서 수카르노가 공산주의를 비호하고 게스타푸에 연루되었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수하르토는 수카르노의 사후 16년이 지나서야 그의 이름과 초상화의 사용을 허락했을 만큼 그를 위험한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했다(Schreiner 2002, 200). 수하르토는 그의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든 1986년에야 수카르노와 하타에게 기존의 민족영웅이라는 범주가 아닌 〈독립선언의 영웅(Pahlawan proklamasi)〉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칭호를 부

여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대중들은 이것이 민족영웅과 다른 범주일 뿐만 아니라 수카르노와 하타의 역사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사실 독립선언자로만 수카르노와 하타를 평가하는 것은 앞서 말한 그들의 다른 기여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수하르토가 수카르노와 하타를 경계하면서도 한 범주의 영웅칭호를 부여한 것은 수하르토가 규정한 판테온에 이들을 “가둠”으로써 대중들의 찬양을 “국가가 통제” 하겠다는 의미도 깔려있었다(Schreiner 2002, 201). 수카르노와 하타는 수하르토의 하야 이후에도 14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다른 공로들을 인정받아 민족영웅에 선정됨으로써 비로소 게스타푸에 연루되어 국가적 배신자로 낙인찍힌 오명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었다. 2012년 11월 7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수카르노와 하타의 영웅선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수카르노는 유명한 1929년 연설인 “인도네시아는 고발한다(Indonesia Menggugat),” 1945년의 뻘짜실라에 대한 연설, 그리고 1960년 있었던 “신세계를 구축하다(To Build the World a New)” 라는 연설을 통해 역사의 노정을 바꾸었으며; 두 번째로, 비동맹노선과 아시아-아프리카의 결속을 다진 공로; 세 번째로, 네덜란드의 손아귀에서 파푸아를 해방시킨 것; 그리고 네 번째로, 민족주의와 국가통합, 국민주권, 해방된 민족으로서의 강력한 이상과 의무를 보여준 점; 다섯 번째로 민중이 읽고 생각하고 지식을 구해야 한다는 호소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하타의 선정 이유로는 각종 연설을 통해 그가 보여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조합에 대한 선도적 사상들, 그리고 1926년의 프랑스 회의와 1945년 덴하아그의 원탁회의에 인도네시아 대표로 참여하여 독립의지를 천명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Harimurti 2012).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지진 않았지만,

역사적 객관성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수하르토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인사들에 대한 영웅선정이다. 수하르토는 게스타푸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희생된 군부 인사들을 영웅에 선정했고, 수퍼수마르라는 권력 양도서를 받는 데 공을 세운 바수끼의 경우에는 사망한 직후 바로 영웅에 선정되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게스타푸를 보는 시각은 정권의 해석과 매우 다르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은 게스타푸가 수카르노의 대통령경호부대가 일으킨 작은 사건을 정권수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하르토가 침소봉대하여, 수카르노와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는 허위적 소문을 유포했다는 분석을 내어 놓고 있다(Roosa 2006). 또한 수퍼수마르에 대해서도 수하르토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카르노가 이 서류에 서명을 할 당시 그는 총부리가 겨누어 진 위협 속에서 억지로 서명을 했다거나, 서류 자체가 아예 위조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Bambang 2001, 116). 또 어떤 이들은 수하르토가 사실상 군사적 위임장(military mandate)에 불과했던 것을 정치적 위임장(political mandate)으로 바꾸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야욕에 사용했다고도 주장해왔다(Bambang 2001, 118). 대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하르토가 문서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재의 여부가 불명확한 수퍼수마르라는 문서 이양의 증인으로 민족영웅에 오른 바수끼는 사실 정권이 바뀐 현재에 그 역할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하르토가 선정한 민족영웅들이 정권의 교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뜻하며, 선정과정에서 영웅선정의 잣대, 즉 민족주의나 공화국에의 기여라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권의 당면한 시대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력이 왜곡되어 왔고, 망자의 역할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V. 민족영웅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과 그들이 제안하는 영웅후보들

앞서 설명했듯 민족영웅은 정권의 지향점에 따라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그 영웅의 범주는 매우 한정적이며, 대중들은 일부 민족영웅에 대해 반감을 표시해왔다. 대중들의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는 수하르토 정권 붕괴 후 민주화의 도래와 함께 언론검열이 해제되면서 매년 민족영웅 기념일을 즈음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등장해 왔다. 여러 의견 중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불만은 지금까지 민족영웅 중 군부 출신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이다(Yuyuk 2013). 또한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 즉 수하르토와 와히드에 민족영웅의 칭호를 수여할 것인가도 논란거리였다. 수하르토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수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으나 와히드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와히드가 민족영웅이 되면 수하르토도 조만간 민족영웅 칭호가 수여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대두되었다(Misbahol 2010; Santirta 2012). 어쨌건 두 전직대통령의 영웅칭호 수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영웅이 아니며 심지어 국가적 배신자라 칭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영웅시되는 인물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지방에서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규정하는 민족주의가 지방의 지역주의적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인물의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정권의 이데올로기 방향에 맞지 않으나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헌한 경우, 대중들은 신문기사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하여 민족영웅 수여 요구를 해왔다.

이런 의견들 중 대중들이 지난 수년 간 민족영웅의 합당한 후보로 제안되어 온 인물들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보자면, 우선 사회주의계 혹은 공산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반공주의적 수하르토 정권은 사회주의계 인사들을 모두 민족영웅의 자격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사실 사회주의 계열에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인물들이 존

재한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뿌라무디아 아난따뚜르(Pramoedya Ananta Toer)나 렌드라(Rendra)와 같은 문인들로서, 이들은 과거 공산주의 계열의 문인 조직인 레크라(Lekra)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전적 및 수하르토의 독재주의를 비판함으로 인해 수하르토 시대에 수십 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뿌라무디아의 경우 권위 있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고 렌드라와 함께 수년간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족영웅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매년 민족영웅의 날이 다가오면 다양한 언론 매체에 뿌라무디아와 렌드라의 민족영웅 자격을 논하는 글들이 게재되어 오고 있다(Yuyuk 2013; Wijaya 2009).

또 다른 소외된 범주는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한 운동가 계급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인권운동과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독살당한 무니르(Munir)로, 국민들 중 다수는 무니르를 민족 영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아직 영웅에 선정되지 않았다(Abdi 2013). 또한 노동운동가 집단에서도 아직 영웅이 선정되지 않았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모두 종족별로 고르게 민족영웅을 선정하려고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종적으로는 차별이 존재했다. 화인으로서 유일하게 민족영웅으로 선정된 인물은 해군 출신으로서 공화국 초기의 다양한 지방반란 진압 등에 힘을 쓴 존 리인데, 그는 영웅선정 사업 시작 이후 무려 50년 뒤인 2009년에야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화인 이외에 소수 인종인 아랍인 중에서는 아직 영웅이 선정되지 않았다(Asvi 2011).

국가통합이나 반공화국적 운동을 일으킨 인물들은 아무리 다른 업적이 뛰어나도 수하르토 시기까지는 민족영웅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를테면 수마트라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I: Pemerintah Revousioner Republik Indonesia) 사건이나 술라웨시에서 발발한 빠르메스파(Permesta) 운동, 기타 아체, 암본, 이리안자야, 동티모르 등의 분리주의 운동 등의 지도자들은 일괄적으로 영웅에서 배제되었다. 이를테면 유명한 이슬

람 정치인이자 제 5대 총리를 지낸 모하마드 나시르(Mohamad Natsir)와 혁명기 임시정부에서 임시수장을 맡고 여러 차례 장관직을 거친 샤프루딘 뿌라위라너가라(Syafruddin Prawiranegara)는 계속해서 영웅 추대 노력이 개진되었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다가 나시르의 경우 2009년에, 샤프루딘의 경우 2011년에야 겨우 영웅에 선정되었다. 이들이 일찍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 사건에 가담한 전적 때문이었다(Asvi 2011).⁸⁾ 그러나 지방의 주민들에게 분리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은 사실상 지난 수십 년간 지역의 영웅이었다. 이를테면 아찌의 30년 분리 독립을 이끌었던 하산 디 띠로(Hasan di Tiro)는 신화적 인물로 남아있으나 민족영웅에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에서의 영웅적 대접에도 불구하고 민족영웅에 선정되지 못하는 많은 인물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영웅후보 일대기에 담긴 내용이 국가적 내러티브나 공화국 형성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영웅선정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후보의 일대기 중 어느 사건을 강조하거나 삭제하여 국가가 원하는 내러티브로 꾸미는가는 전적으로 일대기 작성자(주로 역사가)들의 능력에 달려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바나드(Banard 1997)는 리아우의 세 명의 영웅을 설명하며, 사실상 이 지역에서 덜 유명한 두 명의 위인이 영웅에 선정된 반면, 가장 널리 알려진 한 명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설명했다. 이 중 한명은 역사 속에서 리아우 주민들에게 가장 칭송을 받아왔고 통치기 동안에 지역의 발전에 많은 힘을 쏟았으며, 혁명기 공화국 군대에게 재산을 헌납하는 등 충분히 “민족영웅”이 될 자격을 갖추고도 영웅선정에서 탈락한 군주인 샤리프 카심 2세(Syarif Kasim II)였다. 위인으로 선정된 인물은 피사빌라 왕인데, 그는 부기스족 출신의 덕망 있는 군주로 태평성대를 열었고 1783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이권다툼

8) 사실상 나시르와 샤프루딘의 선정도 결코 정치적 선택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이들은 포스트-수하르토 시대에 이슬람 정당들이 다가올 선거에서 많은 표를 획득하기 위해 과거의 이슬람 지도자의 기억을 이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Asvi 2011).

이 일어나자 일으킨 전투에서 사망한 인물로, 리아우에서 그의 무덤은 성지가 되어 있다. 샤리프 카심 2세의 경우, 자카르타 출신의 일대기 작성자가 현지의 역사가들의 자문 없이 작성한 자서전에는 공화국에 기여한 내러티브가 설득력 있게 씌어있지 못했다. 반면 피사빌릴라 왕은 현지 역사가와 중앙의 역사가들이 협력하여 공화국의 정서에 부합하는 이력을 재구성해 내었지만 리아우 내 일부 말레이인들이 피사빌릴라의 영웅선정에 반대하는 편지를 주지사에게 보낸 일 등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비교적 뒤늦은 1997년에야 영웅에 선정되었다(Banard 1997, 520-522). 이들을 제치고 리아우 출신으로 최초로 민족영웅이 된 것은 푸안꾸 팜부사이로, 그는 빠드리 전쟁에 참여하고 반네덜란드 항전을 벌인 인물이지만 사실 막상 리아우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역사가들과 관료들의 합심으로 그의 이력이 화려하게 재탄생한 결과 1995년에 결국 영웅에 선정되었다(Banard 1997, 522-524). 이러한 사례는 민족영웅의 선정에는 일대기를 작성하는 개인과 관료적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이런 보다 본질적인 이력의 객관성은 이런 물리적 노력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VI. 결론

인도네시아의 민족영웅 선정사업은 국가가 독점하여 관제 민족주의적 성격의 대서사를 강화하고, 지방을 국가에 통합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반영하고, 그 정당성을 지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수카르노 시대에 영웅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공화국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군부인사이거나 초기내각에서 활동한 정치가들, 민족주의 기구를 창시한 초창기 지식인 위주였다. 이런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이슬람, 민족주의, 군부 등의 이데올로기적 세력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바인이 많이 선정되어 자바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한편 군사정권인 수하르토는 군부 인사를 가장 많이 선정했고, 수백 년 전의 군도 곳곳의 인물들을 전격적으로 영웅으로 선정했고, 지방의 위인들을 비교적 골고루 선정했다. 철저한 친미정권을 이끌었던 수하르토 정권 이후 사회주의계나 공산주의계 인사들은 민족영웅에서 배제되었다. 포스트-수하르토 기에도 이러한 선정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영웅선정 과정에서는 위인의 객관적인 삶에 대한 고증 보다는 그 이력 중 정권의 정치적, 국가적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력을 재해석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범주로 해석될 수 있는 위인의 업적이 단순화되거나 사실의 왜곡 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방의 위인들을 일괄적으로 국가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은 다양한 지방의 시대적 관점과 자율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영웅해석의 정부독점은 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민중들의 영웅이나 각종 지방영웅들을 배제시키기도 한다. 또한 영웅들이 자바출신, 남성 위주의, 엘리트 그룹 위주라는 것은 이것이 매우 선택적이며 편협적으로 역사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또한 노동계급이나 지방 인사들의 현격한 배제도 이것이 민중들의 역사를 제대로 고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정권수립에 도움을 준 군부 인사들의 민족영웅 선정도 정권이 바뀌면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중들은 언론매체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정부가 선정하는 민족영웅들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웅후보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이들은 기존의 영웅선정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 중심적이며 정치나 군사 활동에 집중된 선정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보여준 문인과 인권운동가 등 보다 다양한 방면에 업적을 나타낸 인물들로 범주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민족영웅 선정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포스트-수하르토 시대에 민족영웅에 대해 대중들의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은

분명하며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영웅선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주제일 것이다.

[투 고 일 : 2013년12월31일]

[심사완료일 : 2014년01월27일]

[게재확정일 : 2014년01월27일]

참고문헌

- 서지원 (Suh, Ji-won). 2012. “시체 구덩이와 조명: 인도네시아 65년 사태와 빨짜실라 기념비.” (Siche Gudeongi-wa Jomyeong: Indonesia 65nyeon Satae-wa Pancasila) 『아시아저널』(Asia Journal) 6: 193-219.
- Keputusan Presiden No. 241 Tahun 1958.01.01. (해석:대통령령 1958년 241호) [법령]
- Keputusan Presiden No. 33, 1964.04.14. (해석:대통령령 1964년 33호) [법령]
- Abdi, Purmono. 2013. “Munir Berjasa Besar Menata Sistem Hukum RI.” *Tempo*. December 8.
<http://www.tempo.co/read/news/2013/12/08/078535633/Munir-Berjasa-Besar-Menata-Sistem-Hukum-RI> (Accessed 25 December, 2013).
- Bachtiar, Harsja W. 1989. “Kartini dan Peranan Wanita dalam Masyarakat Kita.” *Tempo Magazine* Edition, April 22: pp. 79-81.
- Harimurti, Chandra . 2012. “SBY Resmi Beri Gelar Pahlawan Nasional kepada Soekarno-Hatta.” *Jaringnews.com*.
<http://jaringnews.com/politik-peristiwa/umum/27020/sby-resmi-beri-gelar-pahlawan-nasional-kepada-soekarno-hatta>. (Accessed 2 December, 2012).
- Deliar, Noer. 1979. “Yamin and Hamka: Two Routes to an Indonesian Identity.” Anthony Reid and David Marr, eds. *Perceptions of the Past in Southeast Asia*, pp. 249-246. Singapore: Heinemann.
- Hamid, Abdullah. 1989. “Melacak Perjuangan Raja Haji.” *Sejarah Perjuangan Raja Haji Fisabilillah dalam Perang Melawan Belanda (1782-1784)*. Pekanbaru: Pemerintah Propinsi Daerah Tingkat I Riau.
- Kartodirdjo, Poesponegoro, Notosusanto, eds. 1977. *Sejarah Nasional Indonesia*, Vol. I-VI, Jakarta: Balai Pustaka.
- Markus Junianto Sihalohe 2013. “Bung Kano dan Syekh Yusuf Menginspirasi Mandala,” *Berita Satu.Com*.

- <http://www.beritasatu.com/afrika/154168-bung-karno-dan-syekh-yusuf-menginspirasi-mandela.html> (Accessed 2 December, 2013).
- Misbahol, Munir, 2010. "Tidak Ada Alasan Logis Jadikan Soeharto Pahlawan," *Okezone News*, Oct. 24.
<http://news.okezone.com/read/2010/10/24/337/385795/tidak-ada-alasan-logis-jadikan-soeharto-pahlawan> (Accessed 5 December, 2013).
- Penyusun Tim Sirnabaya, 2009. *Ensiklopedia: Sejarah Pahlawan Nasional*. Jakarta: Sirnabaya Mandirancan.
- Santirta, M, 2012. "Soeharto Belum Akan Jadi Pahlawan Nasional," *Tempo*, November 07.
<http://www.tempo.co/read/news/2012/11/07/078440377/gayahidup.php> (Accessed 7 December, 2013).
- Yuyuk, Sugarman, 2013. "Sidarto Danusubroto: 'Perlu Ada Keppres Rehabilitasi Umum'" *Sinar Harapan*, November 19.
<http://www.shnews.co/detile-28209-sidarto-danusubroto-perlu-ada-keppres-rehabilitasi-umum.html> (Accessed 31 January, 2014).
- Wijaya, Kusumah, 2009. "Setujukah Anda Bila WS Rendra Diangkat Menjadi Pahlawan Nasional?" *Kompas*, August 18.
<http://umum.kompasiana.com/2009/08/19/setujukah-anda-bila-ws-rendra-diangkat-menjadi-pahlawan-nasional-10373.html> (Accessed 15 December, 2013).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 Asvi, Warman Adam, 2011. "How Many National Heroes Do We Need?" *Jakarta Post*, December 15.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1/12/15/how-many-national-heroes-do-we-need.html> (Accessed 15 December, 2013).
- Bambang, Purwanto, 2001. "Reality and Myth in Contemporary Indonesian History,"

Humaniora 13(2): 111-123.

Banard, Timothy P. 1997. "Local Heroes and National Consciousness: The Politics of Historiography in Riau."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153(4): 509-526.

Derks, Will, 1995. "Poets and Power in Pekanbaru: On Burgeoning Malay Consciousness in Indonesia." Paul van der Velde, ed. *HAS Yearbook* 1994, pp. 60-72. Leide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Hadler, Jeffrey. 2008. "A Historiography of Violence and the Secular State in Indonesia: Tuanku Imam Bonjol and the Uses of Histor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7(3): 971-1010.

Hoskins, Janet. 1987. "The Headhunter as Hero: Local Traditions and Their Reinterpretation in National History." *Ethnologist* 14(4): 605-622.

Klinken, Van. 2012. "Locating Life Stories: Researching Provincial Biographies in Indonesia." Maureen Perkins, ed. *Locating Life Stories: Beyond East-West Binaries in (Auto)Biographical Studies*, pp. 169-192. Honolulu: Hawai'i Press.

Reid, Anthony. 1979. "Nationalist Quest for an Indonesian Past," Anthony Reid and David Marr, eds. *Perceptions of the Past in Southeast Asia*, pp. 281-298. Singapore: Heinemann.

Roosa, John. 2006. *Pretext for Mass Murder: The September 30th Movement and Suharto's Coup d'État in Indonesi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Schreiner, Klaus H. 2002. "National Ancestors': The Ritual Construction of Nationhood." Henri Chambert-Loir and Anthony Reid, eds. *The Potent Dead: Ancestors, Saints and Heroes in Contemporary Indonesia*, pp. 183-204.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ABSTRACT

Nationalism and Ideological Directions Represented in the Selection of National Heroes, Indonesia

SONG Seung Won

Assistan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deals with the National Hero Project of Indonesia and the ideologies reflected in it. In Indonesia, the selection of the national heroes has been dominated by the governments. Through this project, the governments have enhanced the nationalism-based narratives and tried to integrate the nation. This project has also taken a role to justify the legitimacies of the regimes. Sukarno, the first president of Indonesia, has selected the national heroes from the circles of the army, politicians in the early cabinets, and intellectuals, who contributed in establishing various nationalist organizations. These heroes can be categorized into a few ideological and religious factions such as Communism, Islam, Christianity, and Nationalism. Most of the heroes were from Java, and thus this project met the criticisms by the people, particularly from outer islands, as Java-centric. Meanwhile, Suharto, the second president who opened the military regime, chose many military figures as the heroes. In addition, many local heroes of the traditional era were now turned into the national heroes as well. The balance between the Javanese and non-Javanese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heroes. As Suharto's regime was a pro-American one, no more socialism or Communism-influenced intellectuals were selected. In the post-Suharto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hero-selection has ensued without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ocess of selection, the careers of the candidates of the heroes were often manipulated in order to fit into the narratives that the regimes support. Particularly, by interpreting the lives of various local heroes in the national framework, their “invented” careers failed to reflect various socio-political dynamics beyond the frameworks. In addition, the selection of heroes showed male-dominated and elite-oriented, according to which the balanced reflection of society was limited to a degree. With the advent of democratization and free press in the post-Suharto era, some public debates concerning the national heroes have emerged. Many people criticized that the hero-selection by the previous regimes were shackled by the ideologies. Then they demanded the governments to widen the scope of the occupational fields of the candidates. It should be further examined whether this kind of public demand on the project will influence the government’s selection of national heroes in the future.

Keywords Indonesia, National Hero, Official Nationalism, Sukarno, Suharto